“글로벌 선도 금융플랫폼 목표… 선택받는 솔루션 만들 것”

이재근 KB금융 회장 취임식

“3000만 고객, 2.6만 임직원 보유 위기의식 가지고 먼저 움직여야 지금의 거대한 변화, 위협 아닌 기회”



KB금융지주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8대 이재근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KB금융그룹

이재근 KB금융그룹 신임 회장은 “과거의 KB금융이 ‘리딩 뱅크’였다면 앞으로의 KB금융은 ‘리딩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변화는 금융 산업의 지형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글로벌 선도 플랫폼 금융그룹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오늘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AI와 디지털이 고객에게 닿는 비용을 한없이 낮추는 시대에 규모만으로 만든 우위는 빠르게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에게는 3000만이 넘는 고객, 금융 전 영역을 아우르는 11개 계열회사, 그리고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는 2만 6000여 임직원이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먼저 움직이며, 여기에 데이터와 AI의 역량을 더한다면 지금의 거대한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 방향은 ▲고객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KB ▲고객이 하나의 KB를 경험하는 진정한 ‘원(One) KB’ ▲고객을 향한 작은 차이로 경쟁력을 만드는 KB 등 세 가지다.

먼저 KB스타뱅킹을 고객의 일상과 금융을 잇는 핵심 플랫폼으로 키운다. AI 에이전트가 고객을 대신해 금융서비스를 고르는 시대에도 가장 먼저 선택받는 솔루션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전략도 단순 진출에서 한 단계 나아간다. 현지 시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글로벌 유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간 칸막이는 걷어낸다. 이 회장은 “계열사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객이 어떤 문으로 들어오든 KB가 가진 최고의 역량과 솔루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은 압도적인 경쟁력이다. 그는 “금융상품과 기술은 빠르게 모방할 수 있지만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세심함과 오랜 시간 쌓아 온 신뢰는 쉽게 따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일정을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는 그룹 IT, 정보보호, AI/DT 담당 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경영진부터 현업까지 정보보호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접점의 보안체계를 핵심시스템과 동일한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는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멀리, 더 오래 성장하기 위한 경영의 근간”이라며 “고객의 이익과 신뢰를 모든 경영 판단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을 새로운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뱅 CEO연임 갈림길… 해외사업·기업가치 제고 ‘핵심’

내년 3월 임기 만료

카카오뱅크, 인니·태국·몽골 등 ‘해외사업 경영전략’ 연임 필요성

이사회 독립성·경영 전문성 강조 케이뱅크, 외부인사 검토 가능성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인터넷전문은행 수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내년 3월 나란히 만료되면서 차기 경영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 모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해외 사업 확대,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기업가치 제고가 연임 여부를 가를 주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3월 25일과 31일 만료된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는 올해 연임에 성공해 2028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윤 대표는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어 온 은행권 대표 장수 CEO다. 카카오뱅크 출범과 성장 과정을 주도해 온 만큼 경영 연속성이 연임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카카오뱅크가 기존 예금·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결제 서비스와 해외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애플페이를 도입한 데 이어 해외 디지털은행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 슈퍼뱅크에 투자한 데 이어 태국 합작 디지털은행 ‘뱅크X’의 내년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몽골 디지털은행 M뱅크 지분 1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진출로, 사업 영역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한 것이다.

해외 사업이 본격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경영진의 전략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과 현지 사업 안정화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경영 연속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다만 윤 대표의 장기 재임은 변수다. 10년 가까이 카카오뱅크를 이끌어 온 만큼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기조 속에서 장기 재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그동안의 경영 성과와 함께 해외 사업의 수익성,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달라진 지배구조와 주가 부양 과제가 차기 행장 인선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첫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규모를 기존 11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사외이사는 8명에서 5명으로, 기타비상무이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KT 출신 이사가 물러나고 최대주주인 BC카드 출신 이찬승 기타비상무이사만 남았다. 최 행장이 겸임하던 이사회 의장직도 KB국민은행 부행장 출신 정진호 사외이사에게 넘겼다.

케이뱅크는 초대 심성훈 행장과 2대 이문환 행장을 KT 출신으로 선임했으나 3대 서호성 행장부터 외부 금융권 인사를 영입했다. 상장 이후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어 차기 행장 인선에서도 금융권 경력을 갖춘 외부 인사가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행장의 경영 성과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최 행장은 올해 3월 첫 연임에 성공했으며 재임 기간 케이뱅크의 증시 상장을 이끌었다.

실적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다만 3분기 순이익은 4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문제는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다. 케이뱅크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면서 기업가치 제고가 주요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성장 기반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두 은행은 CEO 인선에 앞서 연말 임원 인사도 예정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권태훈 경영전략그룹장과 신재홍 기술그룹장, 송호근 투자·신사업그룹장 등 미등기임원 17명의 임기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케이뱅크 역시 이준형 전략실장과 강병주 사업본부장,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김재성 기술실장 등 미등기임원 7명이 같은 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에서는 최대주주 BC카드의 경영기획총괄을 맡고 있는 이찬승 기타비상무이사의 재선임 여부도 관심사다. 이 이사는 차기 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금융

군장병 금융세미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군장병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군부대와의 교류와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순옥 NH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장은 돈에 대한 철학과 투자전략에 대해 직접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NH농협은행 자산관리(WM) 전문가가 은퇴 준비부터 자산 관리까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홍순옥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은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OK금융

채용형 인턴 공채

OK금융그룹은 ‘2026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채용형 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데이터, 기업금융, 개인금융, 경영관리 총 4개 부문에서 40명 내외를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OK금융그룹은 이번 채용에 ‘AI역량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지원자는 챗GPT, 클로드 코드 등 AI 도구를 이용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과제를 마친 후에는 실무진 면접이 실시된다. 평가에 쓰이는 AI 도구 유료 계정과 개인별 노트북은 별도로 제공된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2027년 1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인턴십에 참여하며 현업 AI 과제를 수행한다. 인턴 교육 과정에는 OK금융그룹의 현직 ‘AI 캡틴’들이 멘토로 참여해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한다. /안재선 기자

대환대출·리볼빙 등 카드 빚 일제 증가

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증가 전환
대환대출 1.7조, 전월비 4.8% 증가

지난달 카드론과 대환대출, 리볼빙, 현금서비스 잔액이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은 지난달 부실채권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로 늘었지만, 나머지 지표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취약차주 자금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67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297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5월 이후 첫 증가세 전환이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말 43조253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후 6월부터 9월까지 연달아 감소세를 유지했다.

3분기 말 카드사들의 부실채권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다. 여기에 지난달 증시 변동성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일부 증가하면서 카드론 수요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카드론 금리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55%다. 지난 8월 14.15%에서 9월 13.85%로 낮아진 데 이어 10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카드론 외에 대환대출·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이 일제히 올랐다는 점이다.

대환대출 잔액은 1조7133억원으로, 전달(1조6342억원) 대비 791억원(4.8%) 증가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환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반등하며 증가 폭을 키웠다. 지난 8월 1조6952억원에서 9월 1조6342억원으로 610억원 감소했지만, 10월에는 791억원 늘며 8월 수준을 넘어섰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